

캐나다 CANADA



가정 내 무급노동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여성의 가사노동부담 현실 정확히 드러내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지난 7월 30일 캐나다 통계청이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캐나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캐나다의 여성 *Women in Canada: A Gender-based Statistical Report* 7차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1986년, 2010년, 그리고 2015년 종합사회조사 *GSS: General Social Survey*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캐나다 남성과 여성간의 가사노동 분배, 돌봄 노동, 여가 시간 활용 양상의 젠더 격차가 지난 30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직장에서 수행하는 유급 노동 *paid work*과 가정에서 수행하는 무급 가사노동 *housework*과 돌봄 노동 *care giving*을 총합하여 여성과 남성의 전체 부담 *The total work burden of women and men*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캐나다 여성은 하루 평균 2.8시간 가사노동 *housework*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보다 하루 평균 1.9시간 더 많은 시간이다. 지난 30년간의 추세를 보면, 캐나다 여성이 하루 평균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지난 30년간 42분 감소하고 남성의 경우 24분 증가하여 여전히 가사노동에 있어 여성의 몫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유급 노동 *paid work*과 가정에서의 무급 가사노동 *housework*과 무급 돌봄 노동 *care giving*을 합친 시간은 여성이 하루 7.8시간, 남성이 7.6시간으로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간의 구성을 분석해 보면 여성의 노동에는 가정내 무급 노동의 비중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캐나다 여성은 하루 3.9시간을 가정 내 무급 노동에 소비하는 반면 남성은 2.4시간을, 남성이 하루 평균 5.2시간을 유급 노동 *paid work*에 쓰는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1.3시간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가정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이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이것이 가사노동 수행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을 토대로 조사방법론을 개선하였다. 요컨대 직장에서의 유급 노동의 경우 대부분 지정된 시간에 단일의 업무를 수행 *primary activity*하기 때문에 이에 투여된 시간을 계량적으로 명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집안일의 경우, 예컨대 빨래를 개면서 아이를 보는 것 과 같이 두세 개의 일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멀티태스킹 *multitasking*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 유급 노동의 노동 형태를 기준으로 한 사회조사에서는 멀티태스킹으로 행해지는 무급 노동이 상대적으로 과소 측정 되는 경향이 있

참고자료

- Quartz (2018), "Spain's controversial battle over whether to make its constitution Statistics Canada, Women in Canada: A Gender-based Statistical Report <https://www150.statcan.gc.ca/n1/daily-quotidien/180730/dq180730a-eng.html>
- Statistic Canada, Time use: Total work burden, unpaid work, and leisure <https://www150.statcan.gc.ca/n1/pub/89-503-x/2015001/article/54931-eng.html>
- HuffPost, Canadian Men Are Doing More Chores - Just Not As Often As Women: Statistics Canada https://www.huffingtonpost.ca/2018/07/30/women-chores-study_a_23492278/

한편,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가정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이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이것이 가사노동 수행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과소평가한다는 지적을 토대로 조사방법론을 개선하였다. 요컨대 직장에서의 유급 노동의 경우 대부분 지정된 시간에 단일의 업무를 수행(primary activity)하기 때문에 이에 투여된 시간을 계량적으로 명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집안일의 경우, 예컨대 빨래를 개면서 아이를 보는 것 과 같이 두세 개의 일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 유급 노동의 노동 형태를 기준으로 한 사회조사에서는 멀티태스킹으로 행해진 무급 노동이 상대적으로 과소측정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캐나다 통계청은 이렇게 측정되지 않는 여성의 무급 노동을 드러내기 위해 설문조사에 외에 전화면접을 통해 응답자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48시간 안에 조사하는 방법을 추가했다. 실제로 멀티태스킹의 형태로 향해지는 무급 노동을 고려했을 때 여성의 부담은 훨씬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현재 60.8%의 여성이 멀티태스킹의 형태로 가정 내 무급 노동을 수행하는 반면 40.2%의 남성이 이러한 형태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고, 2010년 기준 여성은 하루 평균 5.4시간을 멀티태스킹의 형태로 향해지는 무급 노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무급 노동을 수행하는 반면 남성은 2.9시간만을 소비하고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노동을 감안했을 때 가사노동에 있어 여성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나다 통계청은 남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구체적인 내용 차이가 가사노동 성별 격차의 원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고 있다.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다른 종류라는 것이다. 여성은 요리와 청소 등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반면 남성은 보다 산발적인 종류의 가사노동, 예컨대 쓰레기 배출, 집수리, 잔디깎이나 정원 손질을 수행하고 있고, 이렇게 성별에 따라 특화되어 있는 가사노동(Gender specialization in housework)이 가사노동의 성별 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정 종류의 노동이 “여성인 수행 해야 할 일”로 생각되는 성별화된 인식이 가사노동 성별 격차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모성보호 조사위원회’ 활동 시작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모성보호 조사위원회’가 2018년 1월 1일 발효된 독일 모성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활동을 시작했다. ‘모성보호 조사위원회’는 개정된 모성보호법 조항이 실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와 함께 임신부나 수유모가 일터에서 겪는 위험 요소, 위험한 상황을 겪는 기간과 범위 등을 조사해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의학 및 위생 수칙도 수립한다.

‘모성보호 조사위원회’는 공공 영역과 사기업 고용주, 노동조합, 주 정부 당국, 학생협의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15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장은 독일 뮌헨대학Ludwig-Maximilians-University Munich 일·사회·환경의학연구소의 우타 오희만 박사가 맡았다.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은 임신과 모유 수유 기간 중 자신과 아기에겐 가해지는 어떠한 위험 요소 없이 일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모성보호법 개정안은 임신 또는 모유 수유 기간에 있는 여성들이 모성보호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 조건을 담고 있으며, 조사위원회가 여러 영역에서 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복잡한 법 조항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부처 웹사이트*에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 <https://www.bmfsfj.de/bmfsfj/service/gesetze/mutterschutzgesetz/73762>

모성보호 조사위원회가 모니터링해야 할 ‘독일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신한 여성과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최선의 보호 규정을 보장해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산부 근로 금지 기간 내 소득보장’, ‘아기가 장애키 있는 경우 출산 후 휴가를 12주로 연장(일반 8주)’, ‘수유를 위한 시간 보장’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적용 범위를 대학교 가기 이전의 여학생과 대학생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직업 통합 교육인 아우스빌드Ausbildung이나 인턴과 같은 실습 과정에 참여 중인 여성도 법 적용을 받는다.

‘모유 수유 시간 보장’과 관련해서는 출산 후 12개월 동안 법 보호를 받는다. 모유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하루에 최소 두 번 30분씩 또는 하루에 한 번 한 시간씩 모유 수유 시간을 보장받는다.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45분의 수유 시간이 두 번 보장되어야 한다. 직장 근처에 모유 수유를 위한 공간이 없다면 최소 90분의 시간을 보장받게 되어있다. 근무시간 계산은 2시간 이상 휴식 시간 없이 일했을 경우, 연속 근무한 것으로 계산된다.

해고에 대한 보호 조항도 추가됐다. 임신한 여성은 고용주가 모성보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임신 사실과 임신 및 출산예정일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후 회사는 관할 관청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는 임신 기간과 출산 후 4개월까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만약 여성 근로자가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2주 이내에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경우 해고는 취소된다. 이와 함께 법 개정안은 임신 12주 이후 유산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허용하지 않는다.

출산 전 더 길게 일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 야간근무 금지 조항도 수정했다. 법 개정 전 임신부는

참고자료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Mutterschutzgesetz 소개
<https://www.bmfsfj.de/bmfsfj/service/gesetze/mutterschutzgesetz/73762>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weitererschritt-fuer-einen-guten-mutterschutz/127060>

출산 전 더 길게 일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 야간근무 금지 조항도 수정했다. 법 개정 전 임신부는 20시 이후 야간근무나 휴일 근무 등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관청에서 검토하고 승인이 나면 야간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20시부터 22시까지 임신부가 근무하려면, 야간 근무 신청서에 여성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안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기관에 상관없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 휴가가 단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독일 연방상원Der Bundesrat은 2017년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독일 정부는 “여성이 임신과 모유 수유를 이유로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겪거나 경력을 이어가는데 있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AUSTRIA

성폭력 범죄 증가에 따른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최근 오스트리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와 비교해 성폭력 발생 건수가 261건에서 374건으로 43% 늘어난 것이다. 비엔나의 경우에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범죄가 12% 늘었다.

이에 오스트리아 여성·가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Familien und Jugend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만 유로(한화 약 2억 5,609만 원)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재편성된 예산은 오스트리아 폭력 방지 및 중재 기관 내에 있는 성폭력 전문 상담 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여성·가족·청소년부 중 여성부는 이미 부처 예산의 50%를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폭력 예방에 쓰고 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올리아나 보그너 슈트라우스 여성·가족·청소년부 장관이 ‘폭력 피해 여성 보호와 지원’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두고 있는 것에서 비롯됐다. 올리아나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부는 이번에 20만 유로를 다른 프로젝트로부터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과 보호 예산으로 재편성했다.”며 “예산 재편성은 폭력 피해 여성들이 끔찍한 상태에 놓여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이 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대상 폭력, 차별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전화’Frauenservice 0800-20-20-11’을 운영 중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이 진행된다.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긴급 전화’Frauenhelpline gegen Gewalt 0800-222-555’는 24시간 열려있다. 비엔나 시에서는 ‘24시간 여성 긴급 전화’Der 24-Stunden Frauennotruf +43-1-71-71 9’를 따로 운영 중이다.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는 또한 스마트폰 앱App인 ‘fem:HELP’도 운영 중이다. 앱에는 음성 메모 녹음, 이미지 저장 등 폭력 상황 기록을 도와주는 다양한 지침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구호 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경찰 긴급 전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여성 긴급 전화 등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게 되어있다. 앱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지도를 통해 오스트리아 내 상담 기관이나 지원 센터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언어는 영어와 터키어, 보스니아어, 크로아티아어, 세르비아어로도 지원된다.

참고자료

- Bundeskanzleramt
<https://www.bundeskanzleramt.gv.at/-/bundesministerin-juliane-bogner-strau-200-000-euro-mehr-fur-opfer-und-gewaltschutz->
-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Familien und Jugend
<https://www.frauen-familien-jugend.bka.gv.at/frauen/gewalt-gegen-frauen.html>
- Die fem: HELP-App
https://www.bmgf.gv.at/home/femHelp_App/

여성대상 폭력 사건으로 점화된 도심 시위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이번 8월 11일과 12일 주말, 스위스의 4개 도시 거리 곳곳에서 청년 단체 및 여성 단체들이 주도하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위가 있었다.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합산하면 약 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시위의 발단은 지난 8월 8일, 제네바의 한 클럽 바깥쪽에서 여러 남성이 20대 초반 여성 5명을 폭행한 사건에서 촉발되었다. 5명의 여성 모두 병원으로 후송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다. 용의자는 프랑스 국적의 남성 3명으로 밝혀졌는데, 프랑스에서는 자국민이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타 국가에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 검찰 측에서 구속 및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이들이 폭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안은 불투명하다. 두 아이의 엄마가 취리히에서 집으로 가던 중 여러 남성 무리로 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고 그에 대해 대꾸하자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사건도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성차별 및 여성대상폭력 근절을 강력히 주장하는 시위를 펼친 것이다.
- 이번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 측에서는 성차별 철폐, 여성대상폭력 예방 등 정부차원의 논의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스위스에서 현재 원내 제2정당인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SP} 상원의원인 제라딘 사바리^{Géraldine Savary}는 한 언론사를 통해 "이번 제네바에서 일어난 사건은 여성대상 폭력 사건 목록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일은 일회성이 아니라, 성차별, 남성우월주의, 젠더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국가전략은 있으면서, 이렇게나 중요한 문제인 여성대상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전략은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사회민주당^{SP} 부대표인 마리나 카로비오^{Marina Carobbio}는 스위스가 이스탄불 협약을 하루 빨리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스탄불 협약이란 유럽평의회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방지와 근절에 관한 협약^{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을 간략하게 지칭하는 것으로, 여성 대상 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및 지역적 차원의 노력 강화를 목표로 이스탄불에서 2011년 5월 유럽연합^{EU} 및 유럽지역 내 46개 국가에서 서명한 협약이다.
- 시위 이후 스위스 정당 내 여성의원 모임 측에서는 여성대상폭력 근절을 위한 5개 정책 계획안을 제시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거절하는 것은 거절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No Means No' 캠페인을 실시한다. 둘째, 관련 피해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셋째, 여성 피해자 쉼터를 확대한다. 넷째, 양성평등 정책을 확실하게 이행한다. 다섯째, 독립적인 감독 센터 설립을 통해 여성대상폭력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수집한다. 이번 사건과 시위를 계기로 스위스 정부에서 앞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철폐 및 예방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 Bundeskanzleramt
<https://www.bundeskanzleramt.gv.at/-/bundesministerin-juliane-bogner-strau-200-000-euro-mehr-fur-opfer-und-gewaltschutz->
- The Local(2018), "Protests after five women brutally attacked in Geneva," 2018년 8월 14일자
<https://www.thelocal.ch/20180814/protests-after-five-women-brutally-attacked-in-geneva>
(접속일자: 2018년 8월 22일)
- The Local(2018), "Violence against women: suspects identified in vicious Geneva attack," 2018년 8월 15일자
<https://www.thelocal.ch/20180815/violence-against-women-suspects-identified-in-vicious-geneva-attack>
(접속일자: 2018년 8월 22일)
- Social Democratic Party of Switzerland(2018), "SP launches five-point pla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2018년 8월 17일자
<https://www.sp-ps.ch/de/publikationen/medienmitteilungen/sp-lanciert-funf-punkte-plan-gegen-gewalt-frauen>
(접속일자: 2018년 8월 22일)
- Swiss Info(2018), "Demonstrators condemn violence against women," 2018년 8월 13일자
https://www.swissinfo.ch/eng/geneva-attack_demonstrators-condemn-violence-against-women/44317786
(접속일자: 2018년 8월 22일)